

2011 새해에는

9 조영조 농협 광주본부장

“도농상생 위해 농산물 유통 대혁신”



산지유통 전문조직 규모화  
중기·서민 금융지원 확대

“농산물 유통 혁신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고, 도시농협의 특성을 살려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조영조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장은 20일 본부장실에서 “농산물 판매 2100억원, 농산물 수출 30만달러, 쌀 판매 230억원이 올해 목표”라며 “이를 위해 산지 유통의 핵심인 공선출하회(공동생산·전수출하·공동계산) 등 전문조직을 육성·규모화해 유통시장의 교섭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본부장은 올해 상반기 가장 하는 광주농산물유통센터와 연계해 도매사업 기반을 강화하고 하나로마트의 체인화, 학교급식 확대로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해 농업인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촌형 농협의 경우 ‘농협 1명품’ 브랜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평동농협은 방울도마도, 대촌농협은 시골채소, 임곡농협은 쌀재 등을 브랜드화 한다는 것이다. 이들 브랜드는 우수농산물(GAP) 인증을 획득, 명품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협 특화 사업도 전개한다. 삼도농협에는 한우직매장을, 서창·동곡농협은 시설하우스와 연계한 주유소 사업 등을 특화한다는 전략이다.

조 본부장은 “광주지역 공동보

랜드인 고품질 ‘빛찬들’ 쌀 생산 및 브랜드 육성 사업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빛찬들’ 쌀은 대형매장이 없어 관료에 예로써 겪었다. 올해 상반기 가장 하는 광주농산물유통센터를 기지로 전국에 ‘빛찬들’ 쌀을 공급할 계획이다. 직거래장터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조 본부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대출과 저소득·저신용자 자금 지원에도 적극 나

서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5900억원이던 중소기업 지원 규모를 올해 7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금융원 최초로 도입한 서민금융지원제도 종합상담 서비스센터인 희망채움 상담창구를 활성화해 ‘새희망플러스대출’과 ‘햇살론’ 등 금융 소외자 대출을 늘릴 방침이다.

그는 농협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특성과 농업인에게 실익이 되는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농촌일손돕기와 1사1촌 자매결연, 장학 사업, 농업인 무료 건강검진, 무료 법률구조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적극 펼칠 계획이다.

그는 “농협은 식량 창고이자 생명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며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농촌이 어려워 농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도시민들이 농촌 살리기에 앞장섰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조 본부장은 영광 출신으로 영광해룡고와 농협대학·한국방송통신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82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신여수지점장, 고흥군지부장, 영광군지부장, 경제사업본부부장, 농협중앙회 자체부장 등을 역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국 인플레이션” 연일 경고

韓銀 보고서 “신흥국 물가상승 불안” 우려

한국은행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시장국의 인플레이션을 경고하는 목소리를 연일 내고 있다.

한은 해외조사실은 20일 ‘신흥시장국의 인플레이션 현황과 정책 대응’ 보고서에서 “신흥국의 인플레이션은 주로 식품가격 상승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정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생활필수품인 식품이 적절한 가격에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면 사회적 동요와 불안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산출하는 식품가격지수는 작년 12월 214.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요 예측기관들은 올해 곡물가격 상승률이 옥수수 25.1%, 밀 15.6%, 대두 4.6% 등으로 작년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 요인으로는 신흥국의 경기 회복과 생활여건 개선에 따른 식품소비

급증, 기상이변으로 말미암은 주요 곡물산지의 수확 부진, 곡물에 대한 투자자금 유입 증가 등이 꼽혔다.

보고서는 또 한국과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인도 등에서 지난해 ‘GDP 갭’(명목 국내총생산과 잠재 국내총생산의 격차)이 플러스로 전환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을 인용해 경제 성장세 확대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신흥국들은 통화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우려에 직면한 신흥국 대부분이 정책금리나 지급준비율을 인상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물가 급등이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흥국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3일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공산품의 부당한 가격 인상에 대처하겠다는 내용의 물가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연희뉴스



대통령이 마련한 설 선물

청와대는 20일 설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이 사회각계 주요인사와 사회적 배려계층 6000여명에게 보낼 설 선물을 공개했다. 설 선물은 쌀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화합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쌀국수와 잡곡세트 등 전국 각지의 농수산물로 구성했다. 주요 품목 및 산지는 충남 부여의 ‘쌀국수’, 전남 보성 ‘검은콩’, 경남 함양 ‘찰흑미’, 강원 영월 ‘찰현미’, 등이다.

/연희뉴스

광주·전남 예금·대출 모두 늘었다

11월 수신 증가로 전환

지난해 11월 중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예금과 대출은 전달보다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 광주·전남 금융기관 수신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모두 증가하면서 전달의 감소(-104억원)에서 증가(+4479억원)로 전환했다.

여신(대출금 기준)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모두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전달(+6995억원)에 이어 증가세(+3896억원)를 이어갔다.

예금은행의 수신은 정기예금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시입출식예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달의 감소(-2848억원)에서 증가(+452억원)로 전환했고, 여신은 공공기관의 자금상환과 신규대출 수요 저조로 증가폭이 축소(+4190억원)→+1623억

원)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신은 자산운용회사의 MMF판매가 줄고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의 자립예탁금 및 정기예금 증가세에 힘입어 전달보다 증가폭이 확대(+2744억원)→+4028억원)됐고, 여신도 신용협동조합의 저신용자를 위한 서민대출이 늘면서 증가세(+2805억원)→+2273억원)를 지속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논 면적 크게 줄고 밭 면적 증가

지난해 광주 전남 지역의 논 면적은 대폭 줄어든 반면 밭 면적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0년 경지면적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경지면적은 30만7261ha로 전년 보다 0.8%(2542ha) 감소했다. 광주도 1만1095ha로 지난 2009년보다 1.7%(191ha) 줄어

들면서 광주·전남 모두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남의 논 면적은 19만4764ha로 전년도 19만8874ha보다 2.1% 감소했고 밭 면적은 11만2497ha로 전년도 11만9292ha보다 1.4% 증가했다.

광주의 논 면적은 7302ha로 7560ha 감소했다. 광주도 1만1095ha로 지난 2009년보다 1.7% 줄어

이처럼 논 면적이 감소하고 밭 면적이 증가한 것은 쌀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쌀보다 수익성이 높은 인삼, 과수 등 특용작물 재배를 위해 논을 밭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전남의 경지면적은 30만7000ha로 가장 넓었고 경북(27만6000ha), 충남(23만3000ha), 전북(20만4000ha), 경기(18만2000ha)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해남군은 경지면적이 3만4835ha로 전국 시·군에서 가장 넓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전남농협, 축산성적 2년 연속 ‘전국 1위’

판매 5265억 달성...작년보다 11% 성장

농협 전남지역본부 축산부문 종합업적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농협 전남본부는 20일 축산물 공동판매·경제사업·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등 8개 항목을 평가한 2010년 축산부문 종합업적평가에서 전국 9개 도단위 지역본부 가운데 1위를 차지, 전년에 이어 2년째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축산물 공동판매 실적은 지리산

순환한우·녹색한우 등 브랜드 축산물의 판매 등에 힘입어 전년 4750억원보다 11% 성장한 5265억원을 달성했다.

조합 경제사업 물량도 전년보다 370억원 늘어난 9470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또 친환경축산기반 조성을 위한 자연순환농업 협약체결도 전년도 29개 조합에서 39개로 늘었고, 축산기자재 공동구매는 39억원으로

목표(19억원) 대비 105% 초과 달성했다. 조사료 재배면적도 2만2000ha까지 확대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

김용복 농협 전남본부장은 “지난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대도시 유통망을 확충해 전남 축산물의 판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조합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역점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Damyang Han-gwa' (다양한과) featuring various types of traditional Korean sweets (han-gwa) like '꽃초롱' (flower lanterns), '우리향' (our fragrance), '자연담' (natural taste), '아리' (ari), and '백리향' (white fragrance). It includes product photo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Damyang Han-gwa.

Advertisement for 'Anbokja Han-gwa' (안복자한과) featuring a variety of traditional Korean sweets. It includes a photo of a woman, the brand nam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Anbokja Han-gwa.

Advertisement for 'Hojeong Han-gwa' (호정식품주식회사) featuring a variety of traditional Korean sweets. It includes a photo of a man, the brand nam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Hojeong Han-gwa.